

가족의 일상생활 연구를 위한 질적방법론 고찰

Studying Everyday Life of Families with Qualitative Methodology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조교수 양성은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Yang, Sungeun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결론 |
| II. 본론 | 참고문헌 |
| 1. 일상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 | |
| 2. 가족학 연구주제로서의 일상성 | |
| 3. 가족의 일상성 고찰을 위한 질적연구방법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article are to explore historical contexts where everyday life is identified as the essence of family studies, and to suggest qualitative methodology which is effective to understand meanings of family everyday life. Everyday life is the integrity of the time when family members progress in a family life cycle, the space where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the way how they achieve their developmental tasks. Qualitative methodology, coming from interpretive science paradigm, focuses on those processes, interactions, and meanings of family members in natural settings. Example researches are introduced to show what specific topic can be studied and how they be interpreted for exploring family everyday life. The future of studying everyday life is discussed in terms of the research topic and the methods.

주제어(Key Words): 일상생활(everyday life), 질적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1. 서론

"Everyday life can seem to lack drama and importance. But in everyday life people find meaning, nourishment, safety, and renewal."(Rosenblatt, 2006, in press)

일상생활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당연히 여기는 경험적 세계를 말하며, 과거에 지나쳤고 현재 존재하며 미래에 살 것이라고 가정하는 세계이다(유계숙, 최연실, 성미애, 1999: 576). “일상생활의 세계”, “매일 매일의 세계”, “상식세계”, “생활세계”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란 용어로 통용되며(Schutz, 1967),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형상태를 일상성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공동의 의식주를 기본으로 의식화되지 않은 만큼 익숙한 상호작용을 장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가족의 특성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가족이야말로 일상생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을 연구하는 가족학이란 학문은 애정공동체이자 경제공동체인 구성원들이 어떻게 의식주를 공유하며, 어떻게 돌봄 노동을 분담하고, 어떻게 친밀감을 유지하고, 어떻게 위기에 대처하는가 등에 관심을 갖는다. 가족학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성이란 연구주제는 가족학자들에게 어찌면 익숙한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이라는 주제를 전면에서 부각시켜 그 이면에 있는 역동적 가족과정(family process)이나 또는 그 심층적 의미를 고찰한 가족학 연구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혹시 너무 익숙한 주제기에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익숙한 주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분석하기 위해 과연 어떠한 학문적 시도가 필요한가? 일상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일상생활의 요체인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은 가족연구의 주제로서 일상성을 고찰하고 이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해석주의적(interpretive) 인식론에 입각한 질적연구방법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가족학의 정체성 측면에서 어떠한 주제들이 가족의 일상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가족의 일상성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법의 유용성이 뒤이어 논의될 것이다.

II. 본 론

1. 일상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

“Folk knowledges of everyday life might have a certain quaint or exotic appeal, but ultimately they must be superceded by social scientific description and analysis.” (Gardiner, 2004: 230)

일상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일상생활세계가 모든 논리이자 모든 학문의 의미 토대”라는 Husserl의 주장 이후, 이를 받아들인 Schutz(1967)에 의해 사회적 맥락 하에서의 일상생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Schutz는 사회적 현실(reality)을 사물들 자체의 존재론적 구조보다는 인간의 정서적이고 활동적인 생활관계 속에서 파악하였다. 결국 현실이란 개인들이 상호주관적으로 공유하는 일련의 의미들로 구성

된다는 것이다.

각 개인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통해 관여하는 상호주관적 세계는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일상생활에는 취침, 식사, 출근, 청소 등과 같이 늘 반복되는 경험과 대학입시, 결혼, 퇴직처럼 시간 간격을 가지고 관례화되는 경험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사회제도 및 문화규범이 밀접히 관련된다. 이러한 일상과 대비되는 것으로는 사고나 질병 등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있다. Schutz는 일상생활세계의 현실이야말로 인간행위의 근원적 출발점이며, 그 속에서 살고, 궁극적으로는 그곳으로 되돌아간다고 보았다. 일상생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사회적 실재를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근거가 이를 통해 도출된다.

한편, Marxism 관점에 선 Lefebvro(1991: 91)는 전체 사회와 개인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일상생활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Lefebvro에 따르면, 일상적 삶이란 궁극적으로 모든 행위와 관련되며, 일상생활 안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들의 총체가 실현된다. 일상적 삶의 실체는 매일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며, 이는 타인과의 공식적 관계 뿐 아니라 가족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 속에서도 드러난다. 결국 인간 실재를 구현하는 모든 관계들, 예를 들면 우정, 동지애, 사랑, 의사소통, 유희 등이 실현되는 장(場)으로서 일상생활은 그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겠다(김복수, 2004: 9).

일상생활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장원순, 2004). 먼저, 일상생활세계는 자연스럽게 당연시되는 세계이다. 이러한 당연성은 타인과 맺는 대면적 관계를 포함하여 반복되는 매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다른 일상생활의 특성은 “지금-여기(here-and-now)”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들은 당연히 관례화된 세계에 있지만 그 이면에 살아 움직이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용적 동기를 가지고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당연성과 더불어 일상생활은 이론적 인식만으로는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 특성도 지닌다. 이는 일상생활이 당연시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례화 된 이면에 역동적이고 예기치 못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론적 인식은 이해되지 않는 일상생활에 대한 반성적 노력의 소산이라고 할 것이다. 일상생활을 이해하려는 학문적 시도에서 중요한 것은 체계화된 이론의 틀로 일상생활을 구조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실천적 관심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은 사회학 분야에서도 거대이론화(grand theorization) 프로젝트의 효용에 대한 회의와 함께 대두되었다. 모든 사회현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해답을 구하고자 시도된 거대이론화 프로젝트는 사회를 비인격화된 힘에 의해 통제되는 실체로 불상화 했으며, 인간의

잠재력과 자율성을 생산양식과 같은 기계적 모델 혹은 기능적 체계와 같은 유기체적 모델로 대체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김종길, 2002). 거대이론화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구조적 강제와 기계적 법칙성 대신 구체적인 개인의 활동과 현실의 생활을 이론화 하고자 하는 응전(應戰)이 사회학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Maffesoli(1979)가 언급한 “하찮은 존재의 즐거움을 인식한다”는 표현대로 개인의 일상적 삶이 연구대상이 된 것이다(이기숙, 1998, 재인용). 이러한 사회학적 관심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가족학에서 일상성 개념을 논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가족학은 초기에 사회학 이론들을 기반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1980년대에 가족학 분야에서 사회학의 주도권이 종식(Boss, Doherty, LaRossa, Schumm, & Steinmetz, 1993: 12)” 되기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2. 가족학 연구주제로서의 일상성

“We all believe families to inhabit everyday life as concrete entities...” (Gubrium & Holstein, 1993: 651)

가족학 발달과정에서도 가족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대이론을 구축하고자 시도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의 하위체계로 가족을 정의하고 가족과 외부체계 간의 교류에 초점을 두던 구조기능주의가 쇠퇴하면서, 점차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이분화가 붕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Boss, Doherty, LaRossa, Schumm, & Steinmetz, 1993: 17). 이를 통해 가족내부의 심리사회적 측면과 외부사회 간의 이분화를 지양하면서, 미시적 접근이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정책적 제안이 미시적 결과에 의존해야한다는 주장이 부각된다. 결국 가족학 분야에서 거대이론 구축이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현재 완전히 잊혀졌다(Klein & White, 1996: 55).

일상생활이란 의식주를 기본으로 가족의 발달과업이 이루어지는 시간, 공간, 그리고 그 방식으로 구성된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일상적 삶은 일개 가족의 사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수준에서 드러나는 것이므로 일상성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가족이 놓인 사회전체의 일상적 구조까지 확대해서 통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가족의 일상생활을 진부하고, 사소하며,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피상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이에 대한 본격적 이론화를 망설이던 입장 대신 현대가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분석을 통한 일상생활 또는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합의가 반영되고 있다.

거대이론화에 대한 회의와 미시적 접근의 강조는 어쩌면 가족학의 정체성 측면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가족

생활은 잘 의식되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특성을 가진 일상생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성미애, 옥선화, 2002: 2). 이러한 가족생활을 연구하는 가족학은 본질적으로 혈연, 입양, 혼인 등의 양식으로 맺어진 구성원들이 어떻게 의식주를 공유하며, 어떻게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 노동을 분담하고, 어떻게 애정을 유지하며 성관계를 맺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에 대처하는가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가족의 일상성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가족학의 본질에 대한 재음미라고 할 것이다.

연구주제로서 일상성은 가족학자들에게 익숙한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반면 “일상”이라는 주제를 전면에 부각시킨 논문은 소수에 불과하다. 예로서, 최근 10년간 대한가정학회지와 한국가정관리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을 검색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두개의 학술지를 지목한 것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선정된지 최소 3년이 경과된 가족관련 학회지로서 대한가정학회지(2001년 선정)와 한국가정관리학회지(2003년 선정)가 대표적이기 때문이다. 이 두 학회지에 “일상”이란 주제어로 검색된 논문을 보면,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고 질문지를 사용해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손정연, 한경혜, 2006)나 기혼여성의 일상적 삶의 질을 다룬 양적연구(김정자, 심혜숙, 김경연, 김선희, 정영숙, 최원철, 최순, 문소정, 1998, 2000)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상” 주제어로 검색된 나머지 논문들은 아동이나 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양적으로 분석한 경우가 주를 이룬다(심희옥, 1998; 이경주, 신효식, 김효심, 1998; 이기숙, 박소영, 2000; 이미리, 2002; 이영한, 한종혜, 박성옥, 1998).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가족학적 관점(family perspective)을 지닌 일상성 연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족학적 관점이란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가족 현상을 탐색하며, 개인 보다는 “가족 전체(family as a whole)”를 분석함으로써 가족의 내적과정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는 시각을 말한다(정현숙, 유계숙, 2001). 물론 가족학계를 대변하는 다른 학술지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 두 학회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아도 “일상”이란 주제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족연구자들의 소극적 경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상”이란 주제어로 검색되는 가족학 논문이 소수라고 해서 이 주제의 연구가 저조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주의가 요구된다. 가족의 일상성에 관심을 두는 것이 가족학의 본질이라는 자명한 사실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연구자들은 선뜻 자신의 논문을 일상성 연구라고 범주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무엇이 가족 일상성 연구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Lefebvre와 Regulier(1999: 5)는 수면, 식사, 취미활동, 다양한 가

사노동 등을 일상성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인간활동으로 예시한 바 있다. 이러한 일상활동을 중심으로 가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 일상활동의 이면에 담긴 가족의 규칙, 역할, 가치관 등을 분석하고, 일상활동이 가족의 항상성을 어떻게 유지하며, 이 항상성이 깨졌을 때 가족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등을 가족학적 관점에서 다룬 논문이라면, 가족 일상성 연구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 일상활동의 하나인 수면(睡眠)을 가족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Rosenblatt (2006)의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Rosenblatt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생리활동인 수면에 관심을 갖고,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부부가 매일의 잠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같이 하며, 그 일상적 활동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성인 88명(부부 42쌍 + 개인 4명)으로서,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따라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부부가 어떻게 서로의 수면양식에 적응하고, 어떻게 물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어떤 대화를 잠자리에서 나누는가와 같은 기술적(descriptive) 분석 뿐 아니라 부부간에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로부터의 회피, 안전함, 안락함, 심지어 종교적 의미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간의 신뢰, 애정, 친밀감, 성행위와 같은 관계적 측면도 부각되었다. 구체적인 예로서, 배우자의 심한 코골이나 치아 가는 습관이 수면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동침(同寢)이 부부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인 동시에 고유의 권리라는 사회적 규범을 드러내며, 부부만이 공유하는 배타적인 일상활동이라는 점에 배우자 상호가 합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잠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애무는 단순한 성행위를 넘어서서 정서적 결속을 드러내는 행위로 의미 규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는 “친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방법”을 통해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당연한 행위 속에 담긴 주관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일상의 체험이 지닌 심층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의 관계를 밝혔다.

가족 일상성 연구는 Rosenblatt의 연구처럼 패턴화 된 상호작용에 주목할 수도 있지만, 이와는 달리 패턴화 되어 형성된 가족항상성이 깨지는 시점에 주목할 수도 있다. 가족항상성을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사건은 가족생활주기 상에 나타나는 규범적 발달과업이다. 이는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경험으로서 출생, 성장, 결혼, 죽음과 같이 가족발달주기 상에서 예상되는 생활전환을 말한다. 규범적 발달과업이 가족의 일상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주목한 연구로 양성은(2005)의 연구와 김영희(2001)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먼저, 양성은(2005)은 우리 가족의 발달주기에서 규범적 과업으로 여겨지는 고 3 자녀의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수험

준비 과정에서 고 3 가족이 겪는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적응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를 획득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고 3 수험생이 있는 핵가족의 40대 중반 어머니를 대상으로 Holstein과 Gubrium의 액티브면접법(active interview method)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중심주제분석법(theme analysis)에 의거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고 3 가족의 일상생활과 그 이면에 있는 가족역동을 드러내었는데, 어머니들은 수험기간 동안 고 3 자녀와 일상생활 스케줄을 동일시하며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지만 아버지들은 물리적 부재와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들은 가사노동, 수면 및 식사시간, 심지어 부부 성관계까지도 고 3 자녀의 학교 및 학원 일정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모든 것을 수능 끝난 뒤로 미뤄놓은” 경직된 상황 속에 일상을 보낸다. 반면 아버지들은 오히려 가족외체계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가족내 일상으로부터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양성은의 연구는 대학입시라는 가족 공동의 발달과업이 부모 각각의 일상생활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저변에 있는 성역할 고정화,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적 압력 등을 드러냈다.

한편, 김영희(2001)는 자녀출산이라는 가족생활주기의 발달과업에 주목하여 경임부 10명의 임신에서 출산 후 3개월까지의 일상생활을 문화기술지(ethnography)로 연구하였다. 임신, 분만, 산욕, 육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부는 일상적이던 가사일, 자녀양육, 성생활 등에 새로운 적응이 필요함을 경험한다. 구체적으로, 임신과 출산이 가져오는 생리적 변화로 인해 부부간의 성관계 패턴이 변화하며, 증가한 가사일과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분담을 위해 상호간의 갈등, 협상, 타협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희는 임신에서 출산 직후까지 부부가 경험하는 일상적 변화에 대한 미시적 분석뿐 아니라 이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큰 사회문화적 맥락에도 주목하였다. 구체적인 예로서, 남아선호에 대한 문화적 가치는 부부가 출산 직전까지 태아의 성별에 보이는 관심으로 표면되며, 어머니를 주양육자로서 규정하는 가부장적 규범은 이를 수용하는 남편과 출산 후 재취업을 원하는 아내 사이의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김영희의 연구는 임신과 출산이 “당연히” 순조롭게 진행되는 생물학적 과업이 아니라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가족확장기라는 변화된 상태로의 진입이며, 새로운 일상성을 획득하기 위해 부부간의 지속적인 타협과 재타협, 노력이 필요한 과정임을 우리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부각시켰다.

가족생활주기 상의 규범적 발달과업과 달리 사고, 실직, 이혼, 천재지변과 같이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비규범적 사건(정순자, 2005)은 가족의 항상성을 위협하며, 패턴화 되어있던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을 교란시켜 위기상황을 유발한다.

이런 경우 가족은 다시 고유의 평형상태인 일상성을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 주목한 연구로 Lam과 Breaulieu(2004)와 김상우(2003)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가족의 일상성을 깨뜨리는 극적인 사건 중 하나는 가족구성원 중 누군가가 갑작스런 발병(發病)으로 입원하는 것이다. Lam과 Breaulieu(2004)는 구성원이 위급한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가족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일상성을 재획득하는지 주목하였다. 연구결과는 “머리맡 현상(bedside phenomenon)”으로 개념화된 핵심주제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환자의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자각을 하면서도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환자 옆을 떠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대기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들 환자가족이 점차 중환자실이라는 맥락에 적응(fitting in)하여 이곳의 규칙과 규정을 습득하고, 병원 내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임시방편의 방법을 찾아내며, 의료진의 전문용어나 처치를 모방하기도 하고, 심지어 의료진과 유사한 복장까지 착용한다는 점이다. Lam과 Breaulieu의 연구결과는 환자가족들이 중환자실이라는 비일상적 맥락에 적응함으로써 어떻게 나름대로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획득하며, 환자를 간병하면서 보호자로서 겪는 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이는 “낯선 곳에서 일상적인 것”을 구현하려는 인간의 기본적 성향을 드러내며, 일상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가족의 실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한편, 김상우(2003)는 “죽음으로 인한 일상적 삶의 위기와 파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갑작스런 구성원의 질환, 입원,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가족의 일상적 평형상태를 깨뜨리는지 주목하였다. 가족사별을 경험한 9명의 연구참여자를 심층면접 하여, 죽음이 임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단발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과정적 경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간병으로 인해 가족은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지냄으로써 일상적 의식주에 불편을 감수해야하며, 자녀양육, 가사, 직업 등의 과업수행에 지장을 받는다. 이처럼 깨어진 가족의 일상성은 결국 환자가 사망해야 해결되는 것이지만, 그 환자가 사망하면 또 다시 구성원의 상실이라는 새로운 가족체계의 위기가 유발된다. 결국 “질환으로 인한 가족의 일상적 삶의 위기는 환자의 사망 직전, 직후의 일이 아니라 발병한 직후부터 임종 후 가족이 새로운 일상생활에 익숙해지는 시기(김상우, 2003: 142)”까지 장기간에 걸친 적응과정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가족 일상성에 관한 연구주제는 지극히 보편적인 의식주에 관련된 활동일 수도 있고, 가족생활주기 상에 나타나

는 발달과업처럼 규범적 사건과 연계될 수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비규범적 사건으로 인한 가족위기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그 구성원들의 일상적 상호작용에 주목했는가, 그리고 그 일상적 상호작용이 지닌 가치에 얼마나 사회문화적 해석과 논의를 부여하는가에 있다고 하겠다.

3. 가족의 일상성 고찰을 위한 질적연구방법

“In studying everyday life, the focus is on what occurs in concrete, natural settings, as opposed to settings created by researchers.” (Douglas, 1980: 1)

연구자가 전통적인 거대이론에 입각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인들을 통제하여 인과관계를 밝히거나 그 변화추이를 예측하는 방법은 실증주의적(positivistic) 인식론에 바탕을 둔다. 객관성을 주장하며 과학적 지식을 강조하는 실증주의는 특정 현상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관찰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아직 관찰되지 않았거나 발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믿을 만한 예언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발견된 법칙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거쳐 실제적으로 적용되거나 후속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일반화를 제공한다(김병성, 1996: 19).

이러한 실증주의는 사회과학을 “과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공헌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식 구성에 있어서 일차적인 지각의 세계, 다시 말해 생활세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객관화된 법칙은 다수의 평균적 집단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평범한 개인이 일상에서 무엇을 느끼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최정실, 1993).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데 단선적인 인과론에 의존하는 경향은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며, 통제된 변인에 대한 믿음은 복잡한 현상에서 나타나는 우연성이나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없앨 수 있다. 개인의 인지, 정서, 생물학적 측면 등을 분리시켜 정밀한 해체적 분석을 시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총체적 인간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자연스러운 일상의 맥락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객관적인 관찰로 수량화하기는 어려우며, 연구대상을 집합적 N(sample size)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각각이 현상에 부여하는 의미를 간과할 수 있다. 실증주의는 “과학적 본질”을 부여함으로써 사회과학의 체계화와 전문적 영역 확보에 이바지 하였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신봉은 학문을 개인들의 일상생활로부터 분리시켜 소위 전문가들의 고유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족의 일상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가족구성원이 보이는 특정행동의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석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연구방법이 유용하다고 하겠다. 질적연구방법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이거나 또는 문제가 되는 순간을 기술하며, 이들이 현상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의미를 이해하거나 해석하려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Denzin & Lincoln, 2000: 3). 해석학적 인식론은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제도현상이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규범의 맥락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66)”는 자각을 출발점으로 한다. 자연과학을 지배하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사회과학에 적용하려는 시도에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다. “객관적 지식이 가능한가”하는 의문을 던지며, “사회적 현실”의 존재에 회의적이다. 인간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개별적이고 특수한 지식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강신택, 1995).

해석학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연구방법은 사람들이 삶에 의미를 두는 방식에 관심을 갖는다. 즉, 평범한 일상의 이면에 주목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실체(the everydayness of what it is to be human)를 드러내고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둔다(Blijlevens, Hocking, Padd, 2006: 30). 조작이나 통제 대신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현상을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며, 그 현상이 발생하는 맥락을 중요시한다. 사람들이 현상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이 발생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파악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협소하게 조작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을 구체화하는 대신 발견의 논리를 지향하는 귀납적 분석을 따른다. 분석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원자료를 계량화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비수학적인 해석과정을 통해 자료에서 개념과 관계를 발견하고 이들을 이론적으로 설명가능하게 조직화한다(Strauss & Corbin, 1998: 11). 자료는 면접이나 관찰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문서, 필름, 비디오테이프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될 수 있다.

한편, 질적연구방법은 사회과학과 예술 분야(특히, 문학)를 구분 짓는 경계선을 흐림으로써 사회과학의 본질을 망각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연구절차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또는 연구결과가 연구자나 특정 연구참여자들의 사적 기술에 머물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연구방법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거나 또는 “일상생활”처럼 익숙하지만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한 주제를 탐색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Stern, 1980). 또한 질적방법은 기존의 양적연구방법을 통해서서는 추출하기 어려운 인간의 느낌, 신념, 사고과정과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

건의 이면에 있는 복잡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연구문제의 본질상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질환, 이혼, 장애 등과 같은 스트레스나 어려움에 처한 개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겪는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실제 행동을 관찰하고 이들의 생각을 개방적 질문(open-ended questions)을 통해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질적연구방법을 가족학에 적용하면, 기존 이론에서 도출된 가설로 가족현상을 설명하는 대신 가족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에 먼저 주목하여 이에 대한 의미를 끌어내게 된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상생활이 사실상 가족 내 각 주체에게 독특한 체형이며,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속에 주관적인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질적방법이야말로 가족 일상성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라고 인정하게 된다.

질적연구방법의 유용성에 대한 자각 및 양적연구방법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족학계는 아직까지 양적연구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천혜정, 2004). 박영숙, 최혜선, 윤인경, 이승신, 이주리(2004)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0-2003) 가정학 분야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4종에 실린 가족학 논문 총 308편 중 약 70%가 설문조사와 실험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문헌연구가 약 16%, 그리고 면접을 실시한 연구가 약 13%에 달했다. 질문지나 실험 대신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모든 논문이 실증주의적 인식론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고려한다면, 국내 가족학 논문 중 해석학적 인식론에 입각한 질적연구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소수일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가족학 분야에서 질적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철학적 지향이 부재하며(천혜정, 2004), 본질적으로 기능주의적 인과관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서수경, 2001)는 비판을 고려할 때 가족 일상성 연구의 발전을 위해 인식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연구방법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III. 결 론

“There is no such thing as ‘everyday life’... In reality, everyday experience is a wholly mediated, contested, and processual site of material and ideological struggles, a screen of unsatisfied hopes, desires and dreams as well as a nostalgic icon of values and order.” (Sandywell, 2004: 174)

본 논문은 실증적 연구(empirical study)에 앞서 연구주

제와 방법론 측면에서 일상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우선되어야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가족연구의 주제로서 일상성을 고찰하고 해석주의적 인식론에 입각한 질적연구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론적 논문(conceptual paper)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대표적 가족관련 학회지에 실린 소수의 논문만을 대상으로 일상성 주제를 고찰한 것이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가족 일상성 연구는 그 주제 측면에서, 가족의 일상적 활동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어떠한 주관적 의미가 부여되는지 탐색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족의 일상성이 깨어진 비일상적 상황 또는 위기상황에 주목함으로써 오히려 가족 일상성의 본질을 부각시키는 시도도 가능할 것이다. 연구자는 일상적 활동의 의미를 도출할 때 이것이 연구참여자 개인에 국한되는 피상적인 사적 기술에 그치지 않도록 사회적 규범 및 문화적 가치와 연계시키려는 해석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연구참여자의 진술은 개인의 지각, 가치, 무의식적 가정(假定), 체험적 개념 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연구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해석을 통해 통합적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도출된 의미에 사회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일상성 연구는 그 효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일상성 연구의 분석단위 측면에서, 가족구성원 개인을 분석의 단위로 사용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가족의 일상이 나의 일상과 동일할까?”와 같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족구성원 개인의 현실을 가족 전체의 현실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지양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족의 합의”나 “가족공동의 결정”이 갖는 신화적 오류를 깨는 작업, 즉 동일한 가족현상을 어떻게 다르게 지각하는가에 대한 관심 역시 가족 일상성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접근이라고 하겠다. 가족의 일상활동을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관점 내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함으로써 가족 전체를 분석의 단위로 다루는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가족 일상성에 대한 연구는 결국 가족구성원들이 의식주를 기본으로 공동의 발달과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각 구성원이 어떠한 체험을 하고, 그 체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Rosenblatt(2006)은 일상생활이란 특별한 자각 없는 망각(obliviousness) 속에 진행되기 때문에 간과되기 쉬우나 이러한 일상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가족 내에서 패턴화 되며,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떠한 갈등이 산재한지에 대해 가족연구자들이 주목할 것을 역설하였다. 사회구조나 정책과 연관된 거시관점으로 가족을 분석하거나 또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가족이론 검증에 몰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시적이고 지극히 구체적인 실생활을 묻는 연구문제를 던짐으로써 가족현상의 새롭고 경이로운 측면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 일상성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해석학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방법을 제안하였다. 일상생활의 주제인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포착하려는 질적연구자들의 시도는 가족학 연구의 이론구축에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Parsons(1951)는 소위 사변적 이론(speculative theories)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론이 체계적이고 추상적으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근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질적연구자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동시에 가져야하며, 질적연구가 “과학이면서 동시에 예술(Straus & Corbin, 1998: 13)”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질적연구는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분석과정의 엄격성을 준수해야한다는 점에서 과학이다. 동시에 현상에 대한 통찰을 주는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를 창의적으로 통합하여,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은 예술적 측면이라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질적연구방법이 앞으로 우리 가족학의 일상성 연구를 위해 이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가족학 본질에 대한 성찰의 일부로서 “보이지만 간과되어온(seen but unnoticed)” 일상생활에 대한 탐색이 그 가치를 새롭게 평가 받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신택(1995). *사회과학연구의 이해*(개정판). 서울: 박영사.
 김병성(1996). *교육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김복수(2004). 일상생활의 시공간적 재구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상우(2003). 죽음으로 인한 일상적 삶의 위기와 파괴. *사회조사연구*, 18, 133-157.
 김영희(2001).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출산과정 경험.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3), 271-283.
 김정자, 심혜숙, 김경연, 김선희, 정영숙, 최원철, 최순, 문소정(1998). 한국 기혼여성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2): 한국 기혼여성의 삶의 질 실태 및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6(12), 87-104.
 김정자, 심혜숙, 김경연, 김선희, 정영숙, 최원철, 최순, 문소정(2000). 한국 기혼여성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3):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 99-122.
 김종길(2002). 거대이론의 위기와 일상성의 재발견: 현상학적

- 행위이론의 비판적 재검토. *사회과학연구*, 7, 67-92.
- 박영숙, 최혜선, 윤인경, 이승신, 이주리(2004). 세계화시대와 가정학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2), 47-67.
- 서수경(2001). 가족학 연구를 위한 이론적 대안으로서의 비판 이론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1-21.
- 성미애, 옥선화(2002). 가족 연구에서의 유형화 연구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0(2), 1-13.
- 손정연, 한경혜(2006).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이혼 후 적응: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83-102.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우울성향: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3-144.
- 양성은(2005). 고 3 수험생 어머니의 입시준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49-61.
- 유계숙, 최연실, 성미애(1999). *가족학 이론*(번역). 서울: 문음사.
- 이경주(1998).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29-39.
- 이기숙(1998). 가족구술사 연구법에 관한 소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109-126.
- 이기숙, 박소영(2000).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자각의 관련성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9), 93-106.
- 이미리(2002). 청소년 초기 일상생활활동 경험의 특성과 스트레스 수준. *대한가정학회지*, 40(1), 69-84.
- 이영환, 한종혜, 박성옥(1998). 아동의 자기-지각과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과 미국아동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2), 73-86.
- 장원순(2004). 사회문화교육방법으로서의 "일상생활" 분석. *사회과 교육*, 43(4), 167-187.
- 정순자(2005). 가족 스트레스의 관리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2(4), 23-42.
- 정현숙, 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 천혜정(2004). 가족학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경향 및 방법론의 문제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61-173.
- 최정실(1993). *교육철학에세이*. 서울: 서광사.
- Blijlevens, H., Hocking, C., & Padd, A. (2006). Thought and action: Combining Narrative and video as research methods to explore peoples' everyday experiences. 7th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Advances in Qualitative Methods (2006, July, Australia), 30-31.
- Boss, P. G., Doherty, W. J., LaRossa, R., Schumm, W. R., & Steinmetz, S. K. (Eds.), (1993).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New York, NY: Plenum Press.
- Denzin, N. K., & Lincoln, Y. S. (2000).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Thousand Oak, CA.: Sage.
- Douglas, J. D. (1980). Introduction to the sociologies of everyday life. In J. D. Douglas, P. A. Adler, P. Adler, A. Fontana, C. R. Freeman, & J. A. Kotarba (Eds.), *Introduction to the sociologies of everyday life* (pp. 1-19). Boston, MA: Allyn & Bacon.
- Gardiner, M. C. (2004). Everyday utopianism: Lefebvre and his critics. *Cultural studies*, 18(2/3), 228-254.
- Gubrium, J. E., & Holstein, J. A. (1993). Phenomenology, ethnomethodology, and family discourse. In P. G. Boss, W. J. Doherty, R. LaRossa, W. R. Schumm, & S. K. Steinmetz (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pp. 167-177). New York, NY: Plenum Press.
- Hobfoll, S. E., & Spielberger, C. D. (1992). Family stress: Integrating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6(2), 99-112.
- Klein, D. M., & White, J. M. (1996). *Family theories*. Thousand Oak, CA.: Sage.
- Lam, P., & Breaulieu, M. (2004). Experiences of families in the neurological ICU: "A bedside phenomenon." *Journal of Neuroscience Nursing*, 36(3), 142-155.
- Lefebvre, H. (1991). *Critique of everyday life volume one: Introduction*, trans. J. Moore. London: Verso.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 Parsons, T. (1951). *The social system*. New York, NY: Free Press.
- Rosenblatt, P. C. (2006, in press). *Two in a bed: The social system of couple bed sharing*. New York, NY: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andywell, B. (2004). The myth of everyday life: Toward a heterology of the ordinary. *Cultural Studies*, 18(2/3), 160-180.
- Schutz, A. (1967). *A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Stern, P. N. (198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s and processes. *Image*, 12, 20-23.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2nd ed.). Thousand Oak, CA: Sage.

(2006년 7월 23일 접수, 2006년 8월 17일 채택)